

BSI 무료웹세미나: CDP 기업보고서 검증 및 최신동향 안내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 오후 2:00 ~3:30 (온라인)

주최 : BSI Korea

| 프로그램

회사 소개 및 인증안내

BSI 지현정 차장

CDP 최신동향 안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

CDP CC(Climate Change) 소개 및 질의서 / 작성안내서 변경 및 신규문항 안내

BSI 양승준 전문위원

CDP Water 소개

에코나인 서욱 대표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 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 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세계 최초의 표준제정기관인 BSI가 CDP 검증시스템과 관련한 변화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세미나로서, CDP 기후변화의 2022년 평가항목 변화 소개 및 CDP 기후변화 & 워터 검증을 상세히 소개한 시간이었음. 국내 기업들의 CDP 응답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제3자 검증의무도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음

Key Takeaway 1

CDP 2022 생물다양성 추가되고 보고 대상 300개 기업으로 확대

-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42개 기업이 지난해 CDP에 응답했음. 주된 응답 이유는 투자자 요청이나 공급사 프로그램 요청이 많았으며,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응답했다는 기업숫자는 91개였음. CDP는 지난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대상기업을 300개로 확대함
- CDP 기후변화, 워터(물), 포레스트(산림) 3가지 외에도 서플라이 체인(공급망)도 중요해지고 있음. 200개 이상 기업들이 공급망 정보를 공시했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급망 체인으로 참여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도 올해부터 가입했음. 최근 스코프3의 공급망 배출량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공급망 공시 요청이 국내기업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CDP 2022 변경 사항과 관련, 예전에는 투자자, 고객사가 정보공개 대상이었는데. 이들뿐 아니라 이제 RE100 멤버기업들도 정보공개 대상이 됨. 뱅크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제 금융사들이 직접 포트폴리오 기업에 CDP 공개하도록 변경됨. 2022년 질문사항에는 생물다양성 모듈이 하나 더 추가되고 6개의 새로운 질문이 들어가있음. 거버넌스(기후전환계획), 전력(RE100 질문),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에너지(바이오연료) 등의 일부 수정내용들이 있음

Key Takeaway 2

제3자 검증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022년부터 스코프3까지 배출량 검증 70%이상이어야 함

- BSI 양승준 전문위원에 따르면, 글로벌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표준 2가지는 PAS 2060 & ISO/WD 14068 표준임. ISO14090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표준이며, PAS 2060 & ISO/WD 14068은 탄소중립성 표준으로, 향후 ISO 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임
- CDP 평가시스템은 4단계로 돼있으며, Disclosure(기업 응답의 완성도), Awareness(환경이슈, 리스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Management(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기업의 활동, 정책, 전략), Leadership(환경경영 관련 우수사례 베스트 프랙티스 및 리더십) 등을 평가함. 가중치는 Management와 리더십 단계의 점수 산정에 적용됨
- CDP 평가시스템을 보면, 최고 수준의 밴드인 리더십 A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80~100% 점수 이외에 모든 리더십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추가 조건이 필요함. 2022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스코프1, 2, 3 배출량 검증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포함됨. CDP 기업보고서의 제3자 검증인센티브와 관련, 검증을 받으면 인센티브 10점을 부여됨

Executive Summary

세계 최초의 표준제정기관인 BSI가 CDP 검증시스템과 관련한 변화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세미나로서, CDP 기후변화의 2022년 평가항목 변화 소개 및 CDP 기후변화 & 워터 검증을 상세히 소개한 시간이었음. 국내 기업들의 CDP 응답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제3자 검증의무도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음

Key Takeaway 3

글로벌 기업의 CDP 수자원 정보공개 요청 늘어, 수자원 관리 중요해져

- 서욱 에코나인 대표에 따르면, 51곳의 메이저 구매자가 4108개 협력업체에 물 정보를 요구했음. GM,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은 CDP 수자원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 등 수자원도 공급망에서의 생존 조건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기업도 정보공개 요청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됨. 또 515개 투자자들이 1868개 상장 대기업들에 물 안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음
- CDP Water의 질문 구조로는, 기업 물 회계지표(corporate water accounting metrics), 가치사슬 참여활동(value chain engagement activities), 비즈니스 영향(business impact), 위험 평가 절차(risk assessment procedure), 위험과 기회 및 그에 대한 대응(risks, opportunities and response to them), 시설 수 회계 지표(facility water accounting metrics), 물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전략(water governance and business strategy), 목표(targets), 검증(verification) 등이 있음
- 올해 특징으로는,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에 대한 정보, 저수분 영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신규로 요청하고 있음. 또 질문 텍스트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를 문도록 수정됐음. 즉 이것은 데이터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졌다는 걸 의미함
- 수자원이 중요해지면, 앞으로 기업들도 수자원 관리 목표를 세우고 전략과 장기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음



BSI 소개 및 인증안내

BSI 지현정 차장

BSI는 1901년 세계최초 국가표준제정기구로 설립됐다. 매년 3000개 이상의 표준을 만들고 국제표준 인증 및 교육사업을 한다. 표준 자체를 접하기 쉽도록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많은 우수사례를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SI의 키워드는 193개국, 8만6000여고객, 3100개 표준이다. 지난해 동안 23만2000여일의 심사를 진행했고, 21만2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산업계 지식의 선구자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표준을 제정해왔다. BS 5750을 전신으로 하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이외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등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표준을 제정하고 지식과 모범사례를 배포 및 공유하며, 이를 활용해서 조직의 내재화를 돕는다. 제품,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고객사 평가, 인증검 및 고객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 124개국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어, 탄소중립 비관세 무역장벽 및 ESG 평가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국제표준은 다음과 같다.

- PAS 2060 탄소중립성 표준: BSI 그룹에서 제정 및 발행한 탄소중립성을 인증하는 방법
- ISO 14090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지침과 요구사항: 이 표준은 전 세계 트렌드 중 하나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중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안에 해당됨
- ISO 14046 물 발자국 관리: 사용된 물의 양자와 수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지리적인 지표
- ISO 14064 온실가스 관련 시리즈: 온실가스 배출의 정량화, 모니터링, 검증에 활용
- ISO 14067 탄소발자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조직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시스템
-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모든 조직의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표준

BSI는 검인증 서비스 교육사업도 집체교육, 방문교육, 이러닝, 실시간 라이브러리로 수행한다. ISO 시스템 수립을 위한 직급별 역량교육도 시행하며, 탄소발자국 및 중립성에 관한 실무자 과정도 론칭했다.

핵심 Comment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준을 제정한 BSI는 국제 표준 인증 및 교육사업을 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을 위해 PAS 2060 탄소중립성 표준이 중요해지고 있음



CDP 최신동향 안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

CDP는 투자자 대신 기업에게 환경정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이다. CDP는 전 세계 9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만3000개 기업이 정보를 공개한다. 공급망을 관리하는 기업이 200개 정도 된다. CDP는 투자자나 기업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도시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1100개 이상 도시들이 CDP를 사용한다. 680곳이 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한다.

CDP 데이터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 공급망 관리, 학계, 정부정책을 수립할 때 CDP를 사용한다. 연구나 캠페인에도 사용한다. ESG 평가사들도 기업들의 기후변화 평가하기 위해서 CDP 데이터를 활용한다. 'Rate the Rater'라는 전 세계 ESG 평가지수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CDP는 다른 평가지수 중 신뢰도 측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요활동을 말하겠다. 전세계 1만3000개 이상 기업이 기후(Climate), 물(Water), 포레스트(Forest)에 응답했다. 응답기업수는 최근 3년 동안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응답기업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2019년 2500개 남짓이었는데 2020년 3000개, 2021년 3800개다. 2019년 대비 2021년 54% 이상 증가했다. 중국은 1407개 기업이 응답했고, 일본이 876개, 대만이 384개, 인도 267개, 한국은 242개 기업이 응답했다. 투자자들이 요청해서 응답한 기업숫자는 91개로 나타났으며, 주된 응답 이유는 투자자 요청이나 공급사 프로그램 요청이 많았다. 올해 트렌드를 보면,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는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상기업을 300개로 확대했다.

먼저 CDP 2021년 정보공개 현황 - 평가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지난해 기변화 평가받은 글로벌 기업은 3144개였으며,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A 및 A- 비율이 지난해

29%에서 21%로 8%p 감소했다. 글로벌 리더십A의 경우 273개에서 200개로 전년 대비 26%p나 감소했다. 기업의 기후문제 대응이 후퇴하면서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니라, 기후문제 이슈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올해는 정성적인 방법을 심플하게 하고,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배점을 낮췄다. 올해 점수는 좀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CDP 참여 주요 이니셔티브 활동 현황을 소개하겠다. SBTi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다. WWF(세계자연기금), WRI(세계자원연구소),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CDP 4개의 비영리조직이 운영하고 있다. RE100은 더클라이밍그룹과 CDP가 운영하는 이니셔티브로,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이니셔티브다. ISSB(국제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는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수립된 IFRS재단 내 위원회로, 여기에서 내놓은 기후변화 공시 기준 초안은 CDP의 CDSB에서 작업한 초안이다. PCAF는 금융기관의 금융 배출량 산정기준을 산출하도록 돕는 이니셔티브다.

SBTi에는 239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참여한 이니셔티브다. 작년에 10월에 넷제로 스탠다드를 만들었다. RE100의 경우 국내에서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360개 기업이 참여한 상태로, 국내 참여기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2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참여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ISSB의 경우 초안이 나와있고, 최근 미국의 SEC에서도 기후공시 초안이 발표됐는데 TCFD에 기반을 하고 있다. TCFD가 CDP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기후변화나 ESG 이슈가 유럽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시들도 주류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CDP 최신동향 안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

한편, CDP 서플라이 체인도 있는데, 200개 이상 기업들이 공급망 정보를 공시한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급망 체인으로 참여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도 올해부터 가입했다. 최근 스코프3의 공급망 배출량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CDP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만 보더라도 스코프3 배출량이 스코프1, 2의 11.4배 규모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사, 공급망 배출량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투자자나 고객사로부터 요청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2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정보공개 요청 주체가 추가됐다. 예전에는 투자자, 고객사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RE100 멤버기업들은 CDP 질의서를 답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통해 멤버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규모를 체크한다.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금융사들이 많은데, 이들 금융사들에게 CDP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개별 공급망 멤버들, RE100 가입 기업, 은행 프로그램(Bank program), NZAMI(넷제로 자산 매니저 이니셔티브) 등도 CDP 질의서를 답변해야 한다. 은행프로그램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는 도입됐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도입되지는 않았다. 금융배출량, 즉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차주 기업들의 배출량이 매우 중요하다. 숫자가 매우 많다보니, CDP에 지금 보고하는 기업만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기업한테 요청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

될 예정이다. 이제 비상장사와 중소중견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CDP 보고를 개별적으로 요청받게 될 것이다.

2022년 질문사항에는 기존의 질문항목 외에 생물다양성 모듈이 하나 더 추가되고 6개의 새로운 질문이 들어가 있다. 거버넌스(기후전환계획), 전력(RE100 질문),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에너지(바이오연료) 등의 일부 수정 내용들이 있다.

평가 부분 관련해서, 한국어워드 수상기업 선정 체계는 다음과 같다. 3단계 프로세스인데 글로벌 파트너가 1차 평가하고, 2단계는 코시프에서 점수 전체를 리뷰하고, 영국 CDP 커미티에서 최종 점수확정을 한다. 3단계는 CDP 기후변화와 CDP 워터 한국자문위원회에서 시상기준을 제정한다. CDP 어워드를 받기 위해서는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 관련 주요 변경사항과 관련, A 리스트 편입기준에 스코프3 검증이 추가됐다. 모든 단계에서 기준 점수를 정하고, 그 다음단계의 알파벳을 구현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A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수를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추가조건을 갖고 있다. 1) 환경 관련 잘못된 행동 하지 않는다 2) 배출한 응답에 대해서 외부에 정보 공개가 돼있어야 한다 3) 지난해까지는 스코프1, 2 산정배출량 가운데 70% 이상을 검증했어야 하는데, 이제 스코프3에 대해서도 70% 검증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탄소경영 아너스클럽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명예의 전당 수상기준을 리더십 A점수와 검증의무 추가했다. 검증을 받으면 인센티브 10점이 부여된다.

핵심 Comment

CDP 2022 변경 사항과 관련, 예전에는 투자자, 고객사가 정보공개 대상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RE100 멤버기업들은 CDP 질의서를 답변해야 함.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금융사들이 많은데, 이들 금융사들에게 CDP 공개하도록 변경됨.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기업한테 요청해서 CDP 보고하도록 하는 은행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도 도입될 예정으로, 이제 비상장사와 중소중견기업들도 CDP 보고 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다



CDP CC(Climate Change) 소개 및 질의서/ 작성안내서 변경 및 신규문항 안내 BSI 양승준 전문위원

BSI CDP 검증,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검증, 온실가스 검증을 하고 있다. 관련된 문의사항 메일 주면 답변주겠다. 먼저 CDP 기후변화 소개에 앞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글로벌에서 관심이 많은 2개의 표준을 소개하겠다.

ISO14090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표준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각 조직이나 국가 차원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 쓰일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로 영국에서부터 쓰이고 있다.

PAS 2060 & ISO/WD 14068은 탄소중립성 표준으로, 향후 ISO 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은 각 산업분야, 민간협회에서 제안하고 BSI가 리드해서 제정하는 표준이다. 탄소중립 선언이나 달성을 할 때, 주체는 지방이나, 정부, 커뮤니티나 회사 브랜드나 사회단체, 개인 모두 가능하다. 탄소중립을 하게 될 대상에는 조직 전체도 될 수 있고, 활동, 특정제품이나 서비스, 건물, 프로젝트, 도시 혹은 야유회나 체육회 등 이벤트 등의 해당 주제만 탄소중립을 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성 공약 선언과 탄소중립성 달성선언 두 가지가 있으며, 이 표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상쇄를 위한 방법론 선택의 원칙을 설정해준다.

CDP 기후변화 평가 및 검증을 소개하겠다. 우리 회사가 ESG 대응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면 CDP부터 하라고 말씀드린다. RE100와 SBTi는 특히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고 탄소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는 목표 설정과 달성여부를 진행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트렌드인데 TCFD도 요구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CDP를 하면 TCFD도 가능하다.

CDP는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을 가장 적절한 섹터로 분류하기 위해 활동기반 산업분류 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통해 환경리스크, 기회, 영향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CDP의 기본적인 평가체계는 모든 섹터 및 질의서에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각 문항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섹터별 질의서에 맞게 일부 수정됐으며 섹터별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CDP 평가시스템은 4단계로 돼있다. Disclosure는 기업 응답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Awareness는 환경이슈, 리스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Management는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기업의 활동, 정책, 전략을 평가하며, Leadership은 환경경영 관련 우수사례 베스트 프랙티스 및 리더십을 평가한다. 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와 관련, 가중치는 Management와 리더십 단계의 점수 산정에 적용되며, 각 단계의 카테고리별 점수는 해당 카테고리에 부여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재산정된다. 2022년 변경사항으로는 사업전략, 재무계획, 시나리오분석 3개 항목으로 1개 항목으로 통합돼 가중치가 9%에서 11%로 변경됐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항목 또한 추가됐다.

CDP 평가시스템을 보면, 기업이 CDP를 통해 제출한 응답서의 내용만을 토대로 CDP와 파트너가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CDP 기후변화는 각 문항별 가중치 적용,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를 모두 공개한다. 기업 응답자료도 공개한다(제출시, 공개를 선택한 기업에 한함) 점수 및 성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 및 밴드만 표시되고, 예를 들어 기준 이상의 Disclosure 점수를 획득하면 다음 Awareness 단계



CDP CC(Climate Change) 소개 및 질의서/ 작성안내서 변경 및 신규문항 안내
BSI 양승준 전문위원

로 넘어가게 되고 이전 Disclosure 단계에서 획득한 점수는 비공개된다. 각 단계에서 일정 점수(80점) 이상 획득시 다음 단계 평가 실행, 최종 단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밴드 등급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Management 단계까지 진출한 경우, 이전 단계 점수에 상관 없이 해당 단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Management B 또는 Management B-를 부여함

CDP 평가시스템을 보면, 최고 수준의 밴드인 리더십 A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80~100% 점수 이외에 모든 리더십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2022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스코프1, 2, 3 배출량 검증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포함됐다. CDP 기업보고서의 제3자 검증인센티브와 관련, 검증을 받으면 인센티브 10점을 부여하고, 2021년부터 CDP Korea Awards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및 명예의 전당 수상기준에 검증의무가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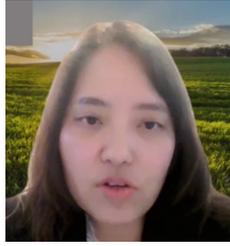
CDP 검증범위는 CDP 기업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별도의 검증의견서 첨부을 요구하는 스코프1, 스코프2 또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검증방향 및 방법의 경우 응답서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수립 및 운영되는 조직의 절차 및 프로세스 확인, 데이터 증빙자료 확인 및 책임자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참여 및 의사결정 확인, 리스크 및 기회 식별, 평가 및 대응 프로세스 확인, 사업전략에 반영된 기후변화 대응 확인, 감축목표 수립 및 성과 확인, 온

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산정방법-데이터 증빙 확인, 인게이지먼트 등 활동자료 확인 등이 이뤄진다.

CDP 검증 대상과 관련, 증빙자료 샘플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보고서 사업보고서 2) 온실가스 스코프 1, 2 배출량 산정 방법론, 명세서, 인벤토리, 검증의견서 3) 스코프1, 2 에너지사용량 산정 데이터 4)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기준 절차 및 방법론, 인벤토리, 검증의견서 5)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관리 감독기구 회의록 또는 보고서 6) 기후변화 이슈 및 안건이 포함된 이사회 보고서 7) 기후변화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항목이 포함된 CEO 또는 C레벨 업무성과 KPI 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의회, 위원회 운영 및 보고서 9)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및 성과 10)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실행 결과 및 증빙 11)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평가, 대응 프로세스 12) Risk 및 기회 평가방법 및 결과 13) 기후변화 관련 전략수립 프로세스, 보고서, 사업전략 반영 결과 14)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15) 인게이지먼트 활동 근거자료 등이다.

핵심 Comment

CDP 평가시스템은 4단계로 돼있으며, Disclosure(기업 응답의 완성도), Awareness(환경이슈, 리스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Management(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기업의 활동, 정책, 전략), Leadership(환경경영 관련 우수사례 베스트 프랙티스 및 리더십) 등을 평가함. 가중치는 Management와 리더십 단계의 점수 산정에 적용됨



CDP Water 소개 에코나인 서욱 대표

CDP 기후변화는 많은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수자원(물)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안해왔다. 왜 수자원을 신경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다. 앞으로 핵전쟁보다 물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물부족국가가 됐다. 물 스트레스 전체 담수 수자원 중에서 어느 정도를 끌어쓸 수 있나 환경유지 용수를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인구가 많고, 강수량이 여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 그래서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다.

하지만 우리가 샤워하면서도 물을 넉넉히 썼고, 사업장에서 제조활동이나 사업을 영위할 때에도 물에 대해서는 목표가 거의 없다. 물은 물쓰듯이 한다.

게다가 온실가스는 위기를 체감하면서 SBTi 나 TCFD 등 글로벌 목표나 열의가 많다.

하지만 수자원 이슈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변 홍수, 가뭄이 많아지면서 사업운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글로벌 워터 리포트 2020’을 보면, 2934개 기업들이 물 안보 위험과 영향 등을 공개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51곳의 메이저 구매자가 4108개 협력업체에 물 정보를 요구했다. GM,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은 CDP 수자원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 수자원도 공급망에서의 생존 조건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기업도 정보공개 요청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515개 투자자들이 1868개 상장 대기업

들에 물 안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물 안보 정책을 수립한 나라들은 77개 정도 된다.

수자원에 대한 위험 요인 드라이버 톱 5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물 효율성, 보존, 재사용’ 등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이런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홍수나 가뭄에 대한 비상계획 개발, 비즈니스 연속성 수정, 인프라, 유지관리 개선, 시설의 지리적 다양성, 스트레스 지수가 심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이전한다든지 개선하려는 노력들,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찾기, 신기술, 오픈이노베이션 등도 많이 하고 있다. 근래에는 공급망 협력업체와 함께 성과개선활동을 많이 하고, 수자원 정보공개 대응 기업들이 늘고있다.

CDP Water의 질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업 물 회계 지표(corporate water accounting metrics), 가치사슬 참여활동(value chain engagement activities), 비즈니스 영향(business impact), 위험 평가 절차(risk assessment procedure), 위험과 기회 및 그에 대한 대응(risks, opportunities and response to them), 시설 수 회계 지표(facility water accounting metrics), 물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전략(water governance and business strategy), 목표(targets), 검증(verification) 등이다.

2020 질문의 변화가 85% 이상 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2개 기업이 CDP 워터에 참여했다. 올해는 2~3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수자원을 당면한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CDP 워터의 질문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마 중소기업에 맞는 질문들을 향후 1-2년 내에 만든다는 얘기가 있다. 질문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올해 특징은 크게 3가지다.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이사회



CDP Water 소개 에코나인 서욱 대표

구성원의 역량에 대한 정보, 저수분 영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질문 텍스트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를 묻도록 수정됐다. 즉 이것은 데이터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한 주류회사를 자문한 적이 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풋프린트와 관련해 각각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아무런 준비가 안된 기업으로 나뉘어진다. 이 기업은 10년 전부터 맥주 한병 제조할 때의 탄소발자국에 대한 LCA 데이터 계산이 돼있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신규 질문에 대응하기 어렵다.

클라이언트들은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볼 때가 많다. CDP는 항상 포션을 물어보는데, 연결기준 몇 %인지 물어보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CDP는 원래 해야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ESG가 기업의 스탠다드로 자리잡으면서, CDP 워터 자체도 ‘워터-시큐어(Water secure)’ 기업으로 변경된다.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기업보고서를 보면 목표의 부재가 정말 많이 없다. 수자원은 더더욱 없다. 규제 틀만 생각하고 있다. 목표를 세우고, 전략과 장기계획이 있어야 한다. CDP든 어디든 공시를 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KPI에 적용하고, 공급업체와 함께 수자원 목표 수립과 달성이 중요해졌다.

핵심 Comment

국내에서는 지난해 22개 기업이 CDP 워터에 참여으나, 올해는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임. 기업들이 수자원을 당면한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으며, 중소기업에 맞는 질문들을 향후 1-2년 내에 만들 계획으로 알려짐